

보도시점 2026. 7. 23.(목) 12:00 배포 2026. 7. 23.(목) 08:30

미래의 경제지도를 그릴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성공적 마무리

- 조사에 적극 참여한 사업체와 조사요원 및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
- 잠정 결과는 올해 12월, 전체 확정 결과는 내년 6월에 공표 예정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는 응답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6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전국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경제총조사는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고용·생산·경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국가 기본통계로, 조사 결과는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과 지역 산업 육성, 소상공인 지원, 미래산업 전략 마련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경제총조사는 인공지능(AI) 활용과 로봇 활용, 스마트공장 운영, 무인 매장 현황 등 최신의 산업생태계 변화를 반영하였으며, 행정자료 활용 확대 등 조사 방식을 효율화하여 전체 약 753만 개 사업체의 44.4%인 약 334만 개 사업체만 현장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사업체 응답 부담을 크게 낮췄다.

또한, 응답자가 스스로가 편리하게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사표 작성 요령 수록 등 온라인조사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응답자 맞춤형 온·오프라인 홍보를 적극 실시함으로써 온라인조사를 확대하였다. 더불어, 인공지능(AI) 챗봇과 전문 상담사를 통한 24시간 콜센터 운영으로 조사에 대한 응답자의 궁금증을 신속히 해소하고, 전화조사도 원활하게 추진하였다.

국가데이터처는 현장 조사된 내용에 대한 검토를 거쳐 지역별, 산업별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에 대한 잠정 결과를 올해 12월에 공표하고, 나머지 모든 항목에 대한 결과는 내년 6월에 확정 공표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누구나 볼 수 있으며, 마이크로 데이터 통합서비스(mdis.mods.go.kr)를 통해 마이크로데이터 형태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바쁜 업무 중에도 성실히 응답한 사업체의 참여와 협조에 깊이 감사드리며, 응답 사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헌신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1만 6천 여명의 조사요원 및 8백 40 여명의 지방정부 공무원 덕분에 이번 조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내일을 설계하는 오늘의 데이터인 경제총조사 결과가 인공지능 대전환 (AX) 등 급변하는 우리나라 산업생태계 현실을 정확하게 보여줌으로써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경제통계국 경제총조사과	책임자	과 장	김혜련 (042-481-3770)
		담당자	사무관	박성인 (042-481-3771)

